

## 최대쟁점 '불법사찰' 공방 격화

### 여야 지도부 광주·전남 접전지 총출동 주말 유세전

선택 4·11

D-9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광주·전남 박빙 승부 지역구에 당 지도부를 파견, 후보들을 집중 지원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불법사찰 문제가 정권심판론을 다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여권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찰"을 주장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관련기사 3·4·5면>  
◇주말 유세전 =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지난 30일 광주를 방문,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과 오찬을 하며 격려했다. 이어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찾아 광주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방문 장소가 최측근인 이정현 후보의 지역구인 서구청은 아니지만, 방문지가 서구의 대표적 노인복지관이라는 점 때문에 간접적 지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광주·전남 유일한 야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광주 서구을)에 대한 야권 지도부의 지원도 이어졌다. 지난 2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30일에는 유시민 공동대표가 각각 지역구를 찾은 데 이어, 31일에는 민주통합당 박지현 최고위원까지 나서 지원유세를 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박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순천에서 소속 정당 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민주당 노관규 후

보를 각각 지원해 주목을 끌었다.

◇불법 사찰 공방 =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지난달 29일 자체 제작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619건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 사찰'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을 방문,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KBS 새 노조 등은 "참여정부 사찰자료는 경찰 공식 보고자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에서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전까지 열흘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면 안 된다"며 조사 대상인 관재진 법무장관 해임, 범죄 은닉 연루자인 검찰 수사사인 전면 교체, 특별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재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또 새누리당 박 위원장에 대해 "2년 전 사찰 문제가 터졌으나 지금까지 침묵, 방조한 것은 권력의 범죄를 은닉,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총선 후보 83명 공약 살펴보니

## 너도나도 복지·일자리... 차별성 없어

### 지방재정 확충·청년 고용할당·골목상권 보호 한 목소리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은 '복지'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중소상인 보호' 등에 대한 실현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탓인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화 방안 등도 다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과 청년 실업자 월 60만 원 취업수당 지급, 주부 수당 신설,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약 대부분이 차별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가 제19대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총 83명의 후보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공약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후보들은 더 나아가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으로·반값 등록금,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후보와 강기정(광주 북구 갑) 후보는 삼근로시간 단축, 전 월세 상한제,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 인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등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공약을 내걸었다.

무소속 송갑석(광주 서구 갑) 후보는 전국 최초 직장 내 보육시설 시범 지역 설정을 내놓았고, 김경진(광주 북구 갑) 후보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복지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관희(광주 동구·윤민호(광주 북구 을) 후보 등 대부분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60만 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 등의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이병훈(광주 동구) 후보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기업 유치로 통해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와 지역기업 청년의무고용 50% 쿼터제 등 청년실업 대책 공약도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복지공약과 청년실업 해소 공약 대부분이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범 전격은퇴

▶ 14면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전국대회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제57회 호남예술제

접수: 음악·무용·국악 ▶ 4월 11일(수) ~ 18일(수)  
미술·작문 ▶ 5월 14일(월) ~ 17일(목)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 등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최고 종합예술제전인 제57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경연기간: 4월 25일(수) ~ 5월 24일(목)
- ▲ 참가부문: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 ▲ 접수기간
  - 음악·무용·국악: 4월 11일(수) ~ 18일(수)
  - 미술·작문: 5월 14일(월) ~ 17일(목)
- ▲ 접수방법
  -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우편번호 501-7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후 확정 4월 23일(월) 발표)
- ▲ 시상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국회의장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 단체-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 장학금
  - 국회의장상 120만원(예정)
  -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우편번호 501-7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 문 의: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 선배와 후배, 이웃과 이웃...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안다는 것, 소통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세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 통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posco  
www.posco.com